



海外業界動向

美國의 반도체 關聯 産業의 曄曄예상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수년간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것에 따라서 반도체용의 접착제, 피복재의 수요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시장조사 회사인 F & S사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수요의 신장에는 제품에 의하여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것은 수요규모가 작은 특수제품이다. 반도체 코팅제는 작년의 8,000만불에 대하여, '95년에는 2억 3,000만불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신장률은 73%에 달하였다. 또한 압착제도 67%의 신장을 나타내어, 작년의 5,800만불에서 9,700만불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PCB 코팅제도 2억 1,100만불에서 2억 9,900만불로, 42%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으로서 최대의 와이어 피복제는 약 20%가 신장되어, '95년에는 9억 1,000만불이 예상되고 있다.

F&S사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약 100사가 전기·전자공업용의 접착제, 피복제를 제조하고 있다. 톱 메이커는 유니온 카바이드 사인데, 시장점유율은 17%, 듀폰의 15%에 이어 3위는 웨스팅 하우스가 7%이다.

미기업의 소련으로의 셀룰러 전화 진출사업 曄발

미국기업에 의한 소련의 셀룰러 전화사업 진출이 계속되고 있다. US West, 미니콤의 양전화회사가 지난달, 모스크바에 소련정부와 합작하여 셀룰러전화 서비스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최근 통신기 메이커인 셀룰러 잉크의 소련에서의 자동차·휴대전화기 생산이 결정되었다.

셀룰러사는 소련 통신생산하의 과학·공업관련부 합기업 빈펠과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데에 최근 조인중이다. 합작회사는 소련의, 동구, 미국에서도 아날로그와 셀룰러 쌍방의 셀룰러 전화기와 동시시스템의 연구개발과 생산을 한다고 한다.

빈펠은 종업원 8만명인데, 이 중 4,000명이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기업은 US 웨스트도 금년 가을에 레닌그라드에서 셀룰러 전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Active 액정, 미국 유저의 동남아/구주공장에 공급

Hosiden은, 21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5일에 내린 Flat Display의 덤핑 결정에 대해

여, 아몰피스 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a-siTFT) Active Matrix 액정 디스플레이의 공급사향지를 유저의 미국 공장에서, 동남아시아, 구주의 각 공장으로 변경하여 Active Matrix 액정 디스플레이에 대하여 과해진 62.6%의 덤핑관세를 회피할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미 동사에서는 7월 8일, 미국 상무성이 Flat Display의 덤핑 판매의 흑판정을 내린 시점에서, a-siTFT Active Matrix 액정 디스플레이의 대미국으로의 수출을 정지하였다. 미국 유저의 동남 Asia, 구주에 있는 공장으로의 수출을 바꾸고 있었는데, 금회의 ITC의 결정을 받아서, 미국 유저의 동남 Asia, 구주의 공장에 a-siTFT Active Matrix 액정을 수출하는 공급형태를 금후도 계속해 나아갈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에 의해 적어도 금년도의 a-siTFT Active Matrix 액정 사업은 당초 예상했던 100억원의 매상고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사에서는 금회의 ITC에 의한 a-siTFT Active Matrix 액정의 덤핑관세 62.67%는 작년 2월부터 7월의 미국 수출분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율의 덤핑관세가 되고 있는데, 차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금년 7월 16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는 a-siTFT Active Matrix 액정 디스플레이의 생산코스트를 금회의 대상기간보다 훨씬 낮추어서 시산으로는 차회의 덤핑관세는 제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퍼스컴 소프트웨어 판매, 제2/4분기 12억불

전미 800사의 퍼스컴 소프트웨어 업자가 가맹하고 있는 미소프트웨어 발행협회는 20일, 금년 제2/4분기(4~6월)의 북미에서의 퍼스컴 소프트웨어의 매상고가 추정 12억불로 올라, 전년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제1/4분기는 16.5%의 증가를 보였다. 제2/4분기의 국제적인 미퍼스컴 소프트웨어의 판매는 38.8%로 증가하였다.

금년 4~6월기는 퍼스컴 화면 기본 소프트웨어가 208.8%증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본소프트의 DOS계 소프트웨어는 2.1%로 감소했다. Apple사 퍼스컴의 Macintosh계 소프트웨어는 40.2%의 증가를 보였다.

'90년 미제조업 생산성 일·서독·이탈리아에 뒤져

미 노동통계국은 22일, 작년의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전년대비 2.5% 상승되었는데, 일본의 3.7%, 구동독의 3.4%, 이탈리아의 3.2%의 상승에 비교하여 뒤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실제의 생산고도 미국은 불과 0.4%의 상승에 대하여, 구서독은 5.1%, 일본은 4.5%, 이탈리아는 1.1%로, 모두 미국을 상회하고 있다.

Hi-Vision용 반도체 미일 4사가 제휴

일립제작소, 부사통, Sony의 3사와 Texas Instruments(TI)사는, Hi-Vision방식 고품위 TV(HDTV)에서 이용되는 Muse Decoder용 반도체를 공동 개발한다는 데에 기본합의에 달했다는 것을 표명했다.

장래의 유망시장으로 보여지고 있는 HDTV용 반도체 개발에서는, 이미 동부-Motorola, 삼양전기, LSI Logicol 제휴하고 있는데, 금회의 4사 공동개발제휴는 미일협조와 외국반도체의 일본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Muse De-code는 압축하여 전송되는 장치이다. 당초, NHK가 중심이 되어 동부, 일본전기, 송하전기, Sharp, Sony, 일립제작소의 반도체 메이커 6사가 Muse Decoder용 LSI를 분담하여 개발하였다. 제1세대의 Muse Decoder는 약 100개의 LSI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사 모두 더욱 집적도를 상승시킨 LSI의 개발을 착수하였다. 부사통도 직접도를 향상시킨 LSI의 개발에 성공하는 등 동분야에서 개발을 강화

하고 있다. 금회의 공동 개발제휴에 대하여 구체적인 각사의 역할 분담 등은 현재 미정인데, 빠르면 금월중에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스타트시킬 계획이다.

부사통, 미국에 UNIX Sott 연구개발 회사 설립

부사통은 19일, UNIX 소프트의 연구개발을 행하는 Open Systems ink를 1일부로 설립 최근 업무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자본금은 부사통이 전액출자하여 230만불, 종업원 27명(미국인)으로 스타트, 매상고는 전부 부사통 위탁개시분에서 첫해는 260만불을 예상하고 있다.

1995년도까지 종업원을 약 60명으로 증가함과 함께, 매상고 740만불을 예정하고 있다.

동사의 운영은 제프 슈리부만 집행 부사장이 담당한다. 주요한 업무내용은 UNIX 기본 소프트의 개발과 UNIX상에의 타사 프로그램의 이식 등이다.

업계최초로 36만 화소 CCD촬상소자 개발

송하전자공업은 업계최초로 36만화소 1/3인치 CCD 촬영상소자 「MN37/7」을 개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개시할 계획이다.

1/3인치 CCD 촬영상소자의 고해상도, 고감도의 요망에 부응한 것으로 컬러 수평해상도의 430TV 분, 염도 500mmV, 최저피사체 감도 3 lux (F1.2)를 실현했다. 1/60분초에서 1/2만분의 연속 가변속 전자 셔터 기능을 탑재하였다.

샘플 가격 1억엔, 신정공장에서 월 1만개 수만개로 양산에 접어들었는데, 국내에 공급을 개시하고 있다. 1월부터 월산 10만불로 인상하여 대외적으로도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금년 2월에는 PAL만불의 43만 화소의 1/3인치 CCD 촬영상소자는 송하전자공업이 업계에 앞서서 작년 2월, 27만 화소의 양산을 개시하였다.

이어서 Sony, 동지, Sharp의 3천개 27만 화소를 양산한다. 현재, CCD 촬영상소자의 1/2 이상이 1/3 사이즈이다.

금회, 양산하는 MN3717은 인터라인 전송방식의 1/3인치 사이즈이다. CCD 촬영상소자는 처음으로 0.8미크론이라는 서브 미크론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유효화소수 682(수평)X 492(수직) 수평해상도 컬러로 430TV 분, 흑백으로는 480 TV분을 달성하였다. On Chip Micro 렌즈에 신매의 유기수지를 채용하였다. 유율을 상승시키고, 집광률을 높여, 1/2인치 CCD 촬영상소자의 약3배, 500 mmV의 고감도를 얻었다. 또한 Photo Diode 표면에 Pf층을 설정한 Padding Photo Diode 구조를 사용하여, 출력 Amp의 저노이즈화를 도모하여, 최저 피하체 조도를 3 Lux (F1.2) 스미아(V/10) 0.01%로 하였다.

드라이 라인공정, Gate 유역화 공정을 등으로 종전보다 처리온도를 100C 이하로 인하여, 표화출력 1000mmV를 유지하였다.

Sony, 구주에서 생산체제 강화

Sony가 구주에서의 생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오스트리아의 타루가우에서 가동한 CD 공장, 곧 기업개시할 프랑스의 바이른주의 정밀부품공장, 미국, 스페인에서 건설중인 공장을 합치면 13개소의 생산거점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R & D)과 동구시장의 강화」와 금후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

최근에 조업한 오스트리아 타루가와 공장은 '87년, 동공장에서 가까운 아니프에 건설한 공장에 이어서 구주에서 두번째의 CD 생산거점이다. 양공장을 합쳐 동사는, 구주에서 월산 1,200만매의 CD생산체제를 시행하는 것이된다. 프랑스에서는 곧 바이노뉴의 정밀부품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공장은 CD 플레이 어용 광학 피크업과 PCB의 생산거점으로써 구주의 동사 각공장에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프랑스 닥스의 자기 테이프 도포공장도 최근 6월에 가동, 동 테이프를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동사의 Audio, Video 공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구주에서의 테이프 일관 생산체제가 확립되었다.

컬러TV에서도 대형투자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바루셀로나에 제2공장을 건설중인데, 내년도의 가동을 지향하여, 영국의 웨일즈의 펜코드에서도 대형공장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장래적으로는 컬러TV 생산을 현재의 주력공장인 브리젤드에서 펜코드로 이전하여, 브리젤드를 브라운관 공장에 편성할 계획이다.

Sony는 산업부분에서도 구주생산을 개시하였다. 작년 8월에 독일의 슈트트가르트에서 생산을 개시한 어셈블용 로봇은 동사의 다른 구주 공장에 납입되고 있는데, 외패우도 강화하고 있다. 구주에서는 동사의 합이 공만 8,000명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생산체제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R & D의 확립을 한층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또한 Sony는 구주시장도 겨냥하고 있다. 동구의 판매는 프랑크푸르트의 Sony Europe International(SEI)가 담당한다. SEI는 현재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에 판매와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소련시장 대책으로써 금년봄에 모스크바에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부사통, 북경에 소프트 개발회사 설립

부사통은 20일, 중국·북경시에 현지자본과의 합작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신회사·북경부사통계통공정유한공사를 10월에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출자비율은 부사통이 51%, 중국측은 중국계산기연건흥 기술복무총공사가 39%, 중국국체산기연건공정공사가 10%, 경영은 부사통 전체에서 행하며, 당초는 종업원 10명으로 스타트한다. 수년후에는 200명 체제를 예정하고 있다. 장래에는 1,000명 규모로 할 예정이

다. 또한 1996년에는 5억원의 매상이 목표이다.

신회사를 부사통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Global한 전개의 일환으로써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부사통의 내의 고객용 UNIX 소프트 등 각종 소프트의 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10년전부터 청화대학, 천을계산센터 등과 공동개발, 4년전에 전자교환기의 소프트웨어의 설계·개발·판매를 목적으로 복건부사통통신 소프트웨어유한책임공사를 복건성과 합작으로 설립하였다. 합작 상대처의 하나의 연건(소프트웨어의 의미)흥 기술복무총공사는 기계전자공업부(통산성에서 담당)배하의 중국전자공업총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중국 최대의 소프트웨어기업(종업원 약 6,000명). 또 한편의 연건공정(엔지니어링의 의미)공사도 인재육성면에서 지도적 입장에 있는 중국국체인재교류협회에 소속되는 유력기업이다.

고용의 안정성에서 우수한 일계기업

일계기업은 급여와 복리후생면에서는 구미기업에 뒤떨어지지만, 고용의 한정성면에서는 우수하다. 민간조사기관인 아시아 사회문제 연구소가 동남아시아제국의 일계기업에게서 근무하는 현지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의 식 조사에서 일본의 기업은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조사를 착수한 금전고준동경공업대 교수는 「종업원의 공평성을 중시하는 일본적 경영은, 대부분의 현지종업원에게 받고 있다. 대우면에서 어떤 개선을 취한다면,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계기업으로부터의 인재유출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금년 5월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일계기업계 10사의 협력을 얻어서, 현지 종업원 3,418명에게 앙케이트를 실시하였다. 구미기업과 비교하여 「급료가 썩다」라고 대답한 것은 68.2% 「복리후생」 「휴가」면에서

는 뒤떨어지고 있다는 회답도 각각 45.9%, 43.3%로 높았다.

그러나 「고용의 안정성」에서는 역으로 40% 정도가 일계기업의 우위를 지적 「노사관계에 대한 배려」에서도 구미기업과는 거의 동일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근속 10년 이상」의 종업원이 60% 이상이나 있기 때문에, 대우면에서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일계기업에 대한 인기가 높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Sony가 DCC의 라이선스 생산 검토

Sony는 Philips가 개발한 Digital Compact Cassette (DCC)의 라이선스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Sony America의 부회장이 네덜란드의 경제지에서 표명한 것으로, 동지에 의하면 Sony는 DCC의 라이선스 생산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Philips와 정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표명했다.

한편, 네덜란드지의 보도에 관하여 독일 VWD 통신은 Philips측의 코멘트로써 「Sony와는 각분야에서 협조체제에 있다. DCC의 라이선스 생산에서는 복수의 메이커와 교섭중이다」라고 전하였다.

DCC는 Philips가 개발, 아날로그식 카세트와 호환성이 있는 카세트 테이프, 전용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디지털녹음이 가능하다.

한편 Sony는 DCC와 대립할 것으로 보여지는 직경 2.5인치의 광자기방식 「미니 디스크(MD)」를 발표하고 있다.

독일에서 ISDN 보급

DBP Telecom사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종합 디지털 통신망 (ISDN)의 가입자 수가, 금년 후반까지 주멀티 플렉스 회선에서 3,500 이상, 기본회선은 4,000만 정도에 달했다.

이것은 국선의 수로 하면 18만 5,000회선을 초과하여, ISDN도입에서 독일은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DBP 텔레콤은 일본의 ISDN 가입수로써 10만 회선, 프랑스는 8만 회선이라는 숫자를 올리고 있다. 독일은, 일본, 영국, 프랑스와 국제 ISDN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7월에는 벨기에와 사이에서도 접속이 가능해진다. 금월초에는 덴마크가 참가되고, 일본에는 미국과의 회선이 개통한다. 또한 연내에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가 참가되고, 내년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접속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주에서는 ISDN 도입을 협조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각서가 교환되고 있는데, 12개국의 26개의 통신사업자가 여기에 조인하였다. 이것에 의하여 ISDN 단말은 어떤 나라에서도 동일한 순서로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근검절약 알뜰소비를 생활화 합시다.